

이러닝 활용 다문화교육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수요 분석 및 지원 방안

안성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학력이 낮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을 통하여 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한국은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과 한국 여성들의 농·산·어촌 생활 기피로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가정 및 직장 생활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을 통해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결혼이민자들의 이러닝을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이러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원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닝 교육과정을 국적별로 편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러닝 교육내용을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안, 결혼이민자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 마련 방안 등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러닝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 다문화교육, 이러닝, 결혼이민자

Support plan and analysis of deman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using e-learning by marriage immigrants

Seong-Hun Ahn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BSTRACT

In this paper, a support plan for marriage immigrants through e-learning was studied. Currently, the number of Korean men marrying foreign women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imbalance of gender ratios caused by preference for boys and shunning of rural areas by Korean women. To alleviat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is performing various social adaptation programs such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Most marriage immigrants, however, are not properly educated as they are burdened by their household duties or work. In this

논문투고: 2012-01-17

논문심사: 2012-01-17

논문완료: 2012-03-20

paper, a plan for supporting marriage immigrants through e-learning was researched. To achieve this goal, a survey on intentions of the marriage immigrants to rece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e-learning was performed. The result showed that most of marriage immigrants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e-learning.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on their preference depending on the original nationality and residential region. A support pla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e-learning was proposed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 The support plan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education for marriage immigrants will be specialized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original nationality. Second, Korean education will be given greater emphasis in education. Third, vocation education which will benefit marriage immigrants will be prepared. Above support plans are expected to help the marriage immigrants to settle as equal members of the society instead of deteriorating into an underprivileged class by providing them with an opportunity to receive education.

Keywords : multicultural education, e-learning, marriage immigrants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 성비의 불균형으로 외국인 과 결혼하는 남성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의 근로 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9만 4천여명이던 결혼이민자 수가 2009년 12만 5천여명으로 3년만에 3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제 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낮은 소득에 따른 경제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소득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직업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다. 그러나 현재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출석 수업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은 생계유지와 육아, 가사 등으로 출석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출석하지 않고 이러닝을 통해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러닝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이러닝 다문화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전 세계의 단일 생활권화로 그 의미가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러닝을 활용한 교육방법은 시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결혼이민자의 실태 및 문제점

2009년 5월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이며, 이중 남성은 17,237명, 여성은 149,85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6]. 국적별로는 조선족 중국인이 32.2%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29.2%, 베트남이 18.4%, 필리핀이 5.9%, 일본이 3.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여성의 경우 언어문제가 22.5%, 경제문제가 21.1%, 자녀문제가 14.2%로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경제문제가 29.5%, 언어문제가 13.6%, 편견 및 차별이 9.4%로 나타났다[5].

결혼이민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59.7%로 매우 낮았으며, 40%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이 29.4%와 1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가구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직업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결혼이민자의 72.8%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생계유지,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한국어와 직업 관련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교육을 받는 비율은 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러닝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선행연구 분석

지금까지 이러닝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체계적인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는 제시된 바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이재분(2009)은 ‘다문화가족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반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지원, 사회통합과 고용촉진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핵심역량 육성 강화, 갈등해소와 이해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문화이해교육’의 활성화, 통합적 교육지원 체제구축을 위한 연계 협력망 강화 등의 네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2]

김미숙(2009)은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인프라 현황과 과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의 교육지원 인프라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마련과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력의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제공, 기관 중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다문화가족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1]

안성훈(2009)은 ‘특수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고 운영의 다양한 방안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특별학급 편성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3]

오은순(2009)은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교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일반교과와 범 교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인적, 물질, 심리적, 행·재정적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4]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방지된다면 이들이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이들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러닝 수요조사 분석

3.1 설문 대상자 표집

결혼이민자들의 이러닝을 통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수요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다문화가족 현황 통계(2009년 5월)를 기초로 각 지역별 거주 비율에 맞춰 총 500명을 표집하고, 표집 집단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별 최소 표집수를 30으로 조정하여 [표 1]과 같이 최종 673명의 설문 대

<표 1> 설문 대상자 표집 현황

지역	결혼 이민자	500명 지역별 표집		최종 표본수
		표집수	비율	
전국	167,090	500	100.0%	673
서울	39,275	118	23.5%	118
부산	7,526	23	4.5%	30
대구	4,965	15	3.0%	30
인천	10,486	31	6.3%	31
광주	3,267	10	2.0%	30
대전	3,623	11	2.2%	30
울산	2,950	9	1.8%	30
경기	44,760	134	26.8%	134
강원	4,188	13	2.5%	30
충북	4,927	15	2.9%	30
충남	8,003	24	4.8%	30
전북	6,743	20	4.0%	30
전남	7,290	22	4.4%	30
경북	8,057	24	4.8%	30
경남	9,586	29	5.7%	30
제주	1,444	4	0.9%	30

상자를 추출하였다.

3.2 설문 도구

설문지는 결혼이민자들이 이러닝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응답자의 배경과 이러닝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닝을 통해 다문화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러닝에 대한 선호도와 이러닝에서 선호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2> 설문지 문항 구성

영역	내용	문항 수	문항유형
일반적 배경	성별, 나이, 거주지역, 거주지역 규모, 출신국적, 학력, 한국거주기간, 직업	9	선택형 Likert척도
인터넷 교육 환경	컴퓨터 사용수준	1	선택형
	컴퓨터 소지여부	1	선택형
	이러닝 선호도	1	Likert척도
	이러닝 수강 경험	3	선택형
	선호 이러닝 강의형태	1	선택형
이러닝 교육 과정 선호도	선호하는 이러닝 교육과정,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법과 제도교육, 정보화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선호 교육내용	6	선택형

3.3 설문 절차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대학교수, 전문연구소 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받았고 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의 이해도, 오류, 응답의 적절성 등을 점검받았다. 설문조사는 2011년 6월~8월에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3.4 조사 결과

설문 조사 결과, 총 673명 중 79.4%인 53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여자가 99.4%, 나이로는 20대 65.1%로 가장 많았다

3.5 결과 분석

3.5.1 선호하는 이러닝 교육 과목

이러닝을 통한 교육에 대하여 결혼이민자들의 71.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받고 싶은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한국어교육이 72.47%(387명), 직업교육이 8.43%(45명), 정보화교육과 문화교육이 각각 5.81%(31명), 법과제도교육이 5.43%(2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이러닝으로 받고 싶은 교육

과목	한국어 교육	직업 교육	정보화교육	문화 교육	법과제도 교육	기타	전체
인원	387	45	31	31	29	11	534
%	72.47	8.43	5.81	5.81	5.43	2.06	100.0

응답자 특성별로 인터넷으로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한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 특성과 이러닝 선호 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각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이러닝 선호 교육이 나타났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라 이러닝 선호 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이러닝 선호 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거주지역에 따라 이러닝 선호 교육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서울, 광주, 충북, 전남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어교육에 대한 선호가 다소 낮았고 서울과 전남은 직업교육, 광주는 정보화교육, 충북은 법과 제도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적에 따라 선호 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이러닝 선호 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국적에 따라 이러닝 선호 교육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의외로 조선족 중국인도 한국어를 사용함에도 불

<표 4> 거주지역과 이러닝 선호교육 간의 교차분석

지역	한국어	문화	법제도	정보화	직업	기타	전체
서울	36	2	0	7	10	1	56
부산	24	1	1	0	1	1	28
대구	20	2	1	0	3	2	28
인천	27	2	4	2	0	0	35
광주	10	3	2	5	3	2	25
대전	30	5	1	1	3	0	40
울산	28	0	4	0	0	0	32
경기	62	0	6	5	3	1	77
강원	6	1	0	0	0	0	7
충북	21	2	3	2	2	2	32
충남	26	0	2	2	2	0	32
전북	22	4	3	2	4	0	35
전남	11	4	0	1	6	1	23
경북	15	1	1	1	2	0	20
경남	16	1	1	1	2	1	22
제주	29	2	0	2	4	0	37
전체	383	30	29	31	45	11	529

* $X^2 = 109.025$ ($p=0.006$)

구하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선호가 60.0%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교육과 정보화교육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정보화교육과 법과 제도교육에 대한 선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2 선호하는 다문화교육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응을 위해 선호하는 다문화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입니까?’라는

<표 5> 국적과 이러닝 선호 교육 간의 교차분석

지역	한국어	문화	법제도	정보화	직업	기타	전체
중국(조선족)	24	1	4	5	5	1	40
중국(한족등)	97	11	3	4	5	1	121
베트남	176	13	12	9	19	3	232
필리핀	27	0	5	5	4	1	42
일본	2	1	0	3	4	0	10
대만	5	1	1	2	0	1	10
몽골	1	1	0	1	0	1	4
태국	42	2	4	1	5	1	55
캄보디아	5	0	0	0	2	2	9
우즈베키스탄	2	0	0	0	0	0	2
러시아	6	0	0	1	1	0	8
기타	387	30	29	31	45	11	533

* $X^2 = 107.964$ ($p=0.000$)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한국어의 생활 풍습이 28.54%(151명), 한국의 요리가 24.01%(127명), 한국의 예절과 한국의 역사가 각각 22.12%(1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선호하는 문화교육

과목	한국 생활풍습	한국 요리	한국 예절	한국 역사	기타	전체
인원	151	127	117	117	17	529
%	28.54	24.01	22.12	22.12	3.21	100.00

응답자 특성별로 선호하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 특성과 선호하는 다문화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각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이 나타났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다문화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선호하는 다문화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거주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다문화교육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주, 대전, 충북, 경북은 한국의 생활풍습, 대구, 대전, 전남은 한국의 요리, 부산, 인천, 울산, 경남은 한국의

<표 7> 거주지역과 선호하는 다문화교육 간의 교차분석

지역	역사	예절	생활풍습	요리	기타	전체
서울	14	10	16	13	0	53
부산	5	9	7	7	0	28
대구	7	4	7	9	1	28
인천	5	14	7	7	4	37
광주	4	2	12	6	0	24
대전	0	7	14	17	1	39
울산	3	13	10	6	0	32
경기	23	13	18	19	4	77
강원	2	1	2	2	0	7
충북	7	5	15	3	2	32
충남	10	6	9	6	0	31
전북	13	7	9	5	1	35
전남	4	6	5	7	1	23
경북	3	5	8	4	0	20
경남	5	6	4	5	1	21
제주	11	8	7	10	2	38
전체	116	116	150	126	17	525

* $X^2 = 81.018$ ($p=0.037$)

예절, 경기, 충남, 전북, 제주는 한국의 역사를 각각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적에 따라 선호하는 다문화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선호하는 다문화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국적에 따라 선호하는 다문화교육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는 한국의 생활풍습, 중국(조선족)은 한국의 역사, 베트남은 한국의 예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국적과 선호하는 다문화교육 간의 교차분석

지역	역사	예절	생활풍습	요리	기타	전체
중국(조선족)	14	5	9	10	3	41
중국(한족등)	32	26	36	22	4	120
베트남	43	69	60	51	7	230
필리핀	11	7	14	9	0	41
일본	2	1	0	6	1	10
대만	4	0	1	3	2	10
몽골	0	0	2	2	0	4
태국	6	6	22	19	0	53
캄보디아	1	1	4	3	0	9
우즈베키스탄	1	1	0	0	0	2
러시아	2	0	3	2	0	7
기타	116	116	151	127	17	527

* $X^2 = 70.047$ ($p=0.002$)

3.4.3 선호하는 법·제도교육

결혼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법과 제도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다문화가정 지원제도가 33.07%(165명), 한국의 교육제도가 31.66%(158명),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와 생활법률이 각각 13.63%(68명), 한국의 의료제도가 4.61%(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선호하는 법·제도교육

과목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교육제도	사회복지제도	생활법률	의료제도	기타	전체
인원	165	158	68	68	23	17	499
%	33.07	31.66	13.63	13.63	4.61	3.41	100.00

응답자 특성별로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에 대한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 특성과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각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이 나타났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거주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경북은 한국의 교육제도, 부산, 대전,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다문화가정 지원제도, 대구는 사회복지제도, 전남은 생활법률을 각각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거주지역과 선호 법·제도교육 간의 교차분석

지역	교육제도	사회복지제도	의료제도	다문화가정지원	생활법률	기타	전체
서울	17	5	3	13	9	1	48
부산	3	4	0	15	3	1	26
대구	7	10	3	7	0	0	27
인천	13	2	0	12	7	1	35
광주	9	3	1	7	1	2	23
대전	7	7	0	18	2	1	35
울산	11	0	0	11	10	0	32
경기	28	11	6	14	12	6	77
강원	4	1	0	2	0	0	7
충북	3	5	2	13	5	1	29
충남	8	3	3	14	2	1	31
전북	15	4	1	10	1	0	31
전남	6	1	1	6	7	2	23
경북	12	4	1	3	0	0	20
경남	5	2	1	8	2	1	19
제주	10	6	1	12	7	0	36
전체	158	68	23	165	68	17	499

* $X^2 = 119.003$ ($p=0.001$)

둘째, 국적에 따라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국적에 따라 선호하는 법과 제도교육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조선족, 한족)과 베트남은 한국의 교육제도에 캄보디아는 다문화가정 지원제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국적과 선호하는 범·제도교육 간의 교차분석

지역	교육 제도	사회 복지 제도	의료 제도	다문화 가정 지원	생활 법률	기타	전체
중국 (조선족)	13	3	4	11	6	2	39
중국 (한족등)	44	23	7	33	9	2	118
베트남	64	26	10	57	45	10	212
필리핀	17	3	1	17	3	1	42
일본	2	3	0	4	1	1	11
대만	0	3	0	4	2	1	10
몽골	2	0	0	2	0	0	4
태국	13	5	1	30	0	0	49
캄보디아	1	1	0	5	1	0	8
우즈베키스탄	1	1	0	0	0	0	2
러시아	2	0	0	4	1	0	7
기타	159	68	23	167	68	17	502

* $X^2 = 76.807$ (p=0.009)

3.4.4 선호하는 정보화교육

결혼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2>와 같이 컴퓨터 기초가 27.72%(140명), 인터넷 활용이 26.73%(135명), 문서편집이 23.37%(118명), OA 실무가 18.0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

과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문서 편집	OA 실무	기타	전체
인원	140	135	118	91	21	505
%	27.72	26.73	23.37	18.02	4.16	100.00

응답자 특성별로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에 대한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 특성과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각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이 나타났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거주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남은 은 컴퓨터 기초,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제주는 인터넷 활용, 경기, 강원, 경북은 문서편집, 충북, 전북, 경남은 OA 실무를 각각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거주지역과 선호 정보화교육 간의 교차분석

지역	컴퓨터 기초	한글 워드	MS-Office	인터넷 활용	기타	전체
서울	19	16	6	8	2	51
부산	7	5	1	12	2	27
대구	4	5	5	8	3	25
인천	7	6	5	12	4	34
광주	8	3	8	5	0	24
대전	10	9	1	14	1	35
울산	8	2	5	13	2	30
경기	20	24	9	21	2	76
강원	2	3	0	1	0	6
충북	5	7	12	2	2	28
충남	8	8	7	6	1	30
전북	7	8	11	7	1	34
전남	13	2	2	6	0	23
경북	5	8	3	4	0	20
경남	5	3	7	4	1	20
제주	10	8	8	11	0	37
전체	138	117	90	134	21	500

* $X^2 = 96.266$ (p=0.002)

둘째, 국적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와 같이 국적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조선족, 한족)과 필리핀은 문서편집, 캄보디아는 컴퓨터 기초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국적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 간의 교차분석

국적	컴퓨터 기초	한글 워드	MS-Office	인터넷 활용	기타	전체
중국(조선족)	8	15	9	7	2	41
중국(한족등)	35	38	29	18	1	121
베트남	64	37	15	84	12	212
필리핀	10	13	9	5	2	39
일본	2	2	4	3	0	11
대만	2	4	1	2	0	9
몽골	0	0	2	1	1	4
태국	17	6	13	11	2	49
캄보디아	1	1	4	1	1	8
우즈베키스탄	0	0	0	1	0	1
러시아	1	1	5	1	0	8
기타	140	117	91	134	21	503

* $X^2 = 99.309$ ($p=0.000$)

3.4.5 선호하는 직업교육

결혼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5>와 같이 외국어 강사 양성교육이 35.02%(180명), 요리사 자격증 교육이 23.54%(121명), 의복 만들기가 19.65%(101명), 미용기술교육이 13.4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선호하는 직업교육

과목	한국어강사 양성교육	요리사 자격증	의복 만들기	미용기술교육	기타	전체
인원	180	121	101	69	43	514
%	35.02	23.54	19.65	13.42	8.37	100.00

응답자 특성별로 선호하는 직업교육에 대한 의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 특성과 선호하는 직업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각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선호하는 직업교육이 나타났다.

첫째, 거주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선호하는 직업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6>과 같이

<표 16> 거주지역과 선호하는 직업교육 간의 교차분석

지역	의복 만들기	요리사 자격증	미용기술 교육	한국어 강사양성교육	기타	전체
서울	14	12	6	13	6	51
부산	6	8	4	7	2	27
대구	8	5	5	5	5	28
인천	3	13	3	12	3	34
광주	2	4	5	10	3	24
대전	4	11	11	10	1	37
울산	11	4	1	15	1	32
경기	19	14	7	30	6	76
강원	1	1	1	3	0	6
충북	4	4	2	17	4	31
충남	3	9	2	10	6	30
전북	5	8	2	15	3	33
전남	3	9	6	5	0	23
경북	3	7	2	8	0	20
경남	8	5	2	6	1	22
제주	5	6	10	13	2	36
전체	99	120	69	179	43	510

* $X^2 = 89.243$ ($p=0.008$)

거주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교육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구, 경남은 의복 만들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는 외국어 강사양성교육, 부산, 인천, 전남은 요리사 자격증 교육을 각각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적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과 선호하는 직업교육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7>과 같이 국적에

<표 17> 국적과 선호하는 직업교육 간의 교차분석

국적	의복 만들기	요리사 자격증	미용기술 교육	한국어 강사양성교육	기타	전체
중국(조선족)	8	10	2	17	2	39
중국(한족등)	17	19	16	63	6	121
베트남	55	65	15	63	22	220
필리핀	2	13	6	16	3	40
일본	2	4	0	4	1	11
대만	0	3	3	2	2	10
몽골	0	0	3	1	0	4
태국	13	5	20	8	3	49
캄보디아	1	1	2	2	3	9
우즈베키스탄	2	0	0	0	0	2
러시아	0	1	2	3	1	7
기타	100	121	69	179	43	512

* $X^2 = 122.808$ ($p=0.000$)

따라 선호하는 직업교육의 차이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조선족, 한족)과 필리핀은 외국어 강사 양성교육, 베트남은 요리사 자격증 교육, 캄보디아는 의복 만들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개인특성과 선호 교육과목 간의 연관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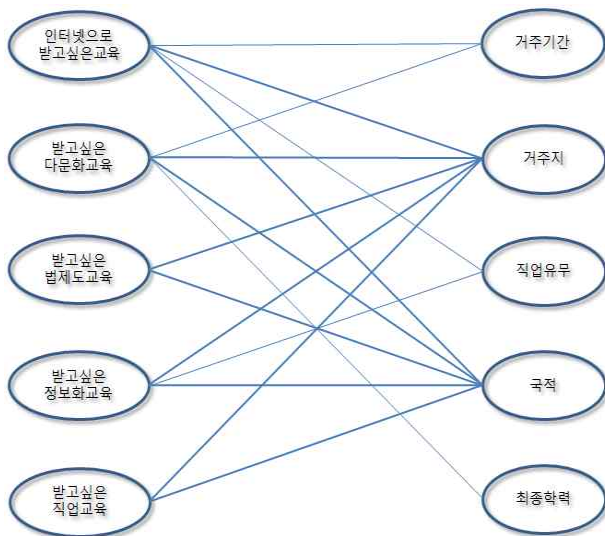
인터넷을 통해 받고 싶어하는 교육에 대해 개인적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 특성별 받고 싶은 교육의 교차 분석 결과를 (그림 1)과 같이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에서 어느 정도 거주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받고 싶은 교육’과 ‘받고 싶은 다문화 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거주지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받고 싶은 교육’, ‘받고 싶은 다문화 교육’, ‘받고 싶은 법·제도교육’, ‘받고 싶은 정보화교육’, ‘받고 싶은 직업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직업유무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받고 싶은 교육’과 ‘받고 싶은 정보화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출신 국적을 나타내는 국적에 따라서 ‘인터



(그림 1) 개인 특성별 받고 싶은 이러닝 다문화교육

넷으로 받고 싶은 교육’, ‘받고 싶은 다문화 교육’, ‘받고 싶은 법·제도교육’, ‘받고 싶은 정보화교육’, ‘받고 싶은 직업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최종 학력을 나타내는 최종학력에 따라서 ‘받고 싶은 다문화 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특성 중에서 거주지와 국적이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와 국적은 인터넷으로 받고 싶은 교육, 받고 싶은 다문화교육, 받고 싶은 법·제도 교육, 받고 싶은 정보화 교육, 받고 싶은 직업교육 등의 모든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닝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와 출신 국적을 가장 먼저 고려하여 강좌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러닝을 통한 다문화교육 지원 방안

4.1 다문화교육제도 개선 방안

앞 절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러닝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이러닝 교육과정을 국적별로 편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이민자들은 이러닝을 통해 교육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림 1)과 같이 출신 국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수요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수하게 이러닝만으로 운영되는 교육은 국적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고 이러닝과 출석수업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국적별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역별로 실정을 감안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전국 180여 개의 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을 출신 국적별로 분리하여 수준별로 교육하는 방안은 극히 비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닝을 통해 전국 혹은 광역 지역

단위의 학습 단위를 조직한다면 출신 국적에 따라 충분히 수준별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보완적인 출석 수업을 운영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출신 국적별 학습 단위에는 해당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동질감에 의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둘째, 이러닝 교육내용을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편성한다. [표 5]에서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교육으로 한국어교육이 72.5%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중국(조선족)의 경우에도 60%가 한국어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한국어교육 위주로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출신 국적이 일본인 경우에는 한국어교육보다는 직업교육과 정보화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교육내용은 한국어교육 다음으로 직업교육인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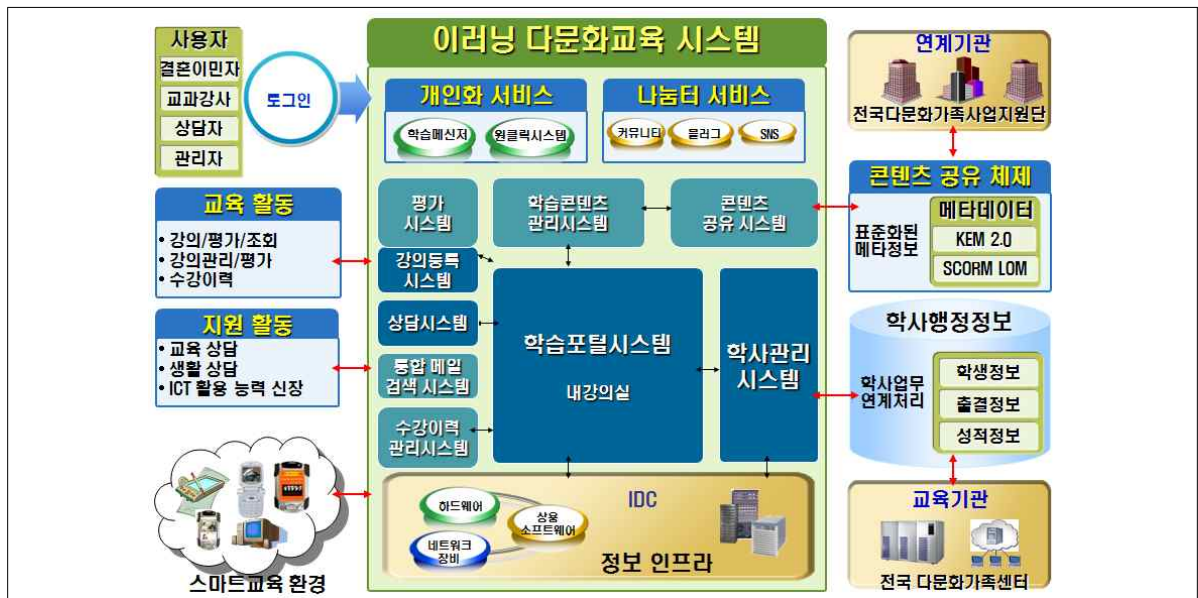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이중언어(출신국가 언어와 한국어) 강사 양성 교육과 요리사 자격증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을 강화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출신 국가의 언어를 가르치고 출신국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이중언어교사 교육과정과 출신국의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2 이러닝 다문화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이러닝을 이용해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닝 다문화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교육은 담당 부처별, 기관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재정이 열악하여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이러닝 다문화교육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각 다문화교육 기관에 공동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이러닝 다문화교육시스템을 구성해보면 그림 2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

첫째,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서 개발되는 다문화



(그림 2) 이러닝 다문화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학습콘텐츠관리 및 공유 기능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강의등록과 학습이력을 관리해줄 개인화서비스와 수강이력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가 결혼이민자들이므로 교육상담, 생활상담, ICT 활용 능력 신장 등을 위한 상담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닝 다문화교육시스템을 사용할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학사행정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외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이러닝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5. 결론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가정 및 직장 생활의 부담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러닝을 통하여 사회 적응에 도움이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의 이러닝을 통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이러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 정보화교육, 문화교육, 법 제도교육 순으로 나타났는데 결혼이민자들의 거주지역과 출신 국적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충북, 전남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어교육에 대한 선호가 다소 낮았고 서울과 전남은 직업교육, 광주는 정보화교육, 충북은 법과 제도교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적별로는 의외로 조선족 중국인도 한국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선호가 60.0%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교육과 정보화교육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필리

핀은 정보화교육과 법과 제도교육에 대한 선호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닝 교육과정을 국적별로 편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러닝 교육내용을 한국어교육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안, 결혼이민자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 마련 방안 등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러닝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안들은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고 싶지만 가정과 직장 업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이러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동등한 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미숙(2009).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인프라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49-157.
- [2] 이재분(2009). '다문화가족 역량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139-142.
- [3] 안성훈(2009)은 '특수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방송고 운영의 다양한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63-168.
- [4] 오은순(2009).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RM 2009-10, 3-10.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647-668.
- [6] 행정안전부 <http://www.mest.go.kr/>

저자소개



안 성 훈

2001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육학 박사
2004~2011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2011~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원격교육, WBI

e-mail: sernself@hanmail.net